

‘전북가야’의 역사적 실체 검증

이도학*

목 차

- | | |
|--------------------|------------|
| 1. 머리말 | 참고문헌 |
| 2. 문헌을 통해 본 ‘전북가야’ | <Abstract> |
| 3. 맺음말 | |

국문초록

반과국의 소재지를 대가야와 연관지어 해석하는 견해가 주종을 이루지만,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장수와 남원 지역 고총고분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그리고 최근 수년 간 여러 논문을 통해서 밝혔듯이 반과국은 장수로 비정하는 일이 가장 합리적이다. 문헌과 고고학적 물증이 부합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 논리를 부수기 위해 『일본서기』의 관련 기사가 『삼국지』 장기전의 문구 가운데 7자가 동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른바 윤색설이 태동한 것이다. 그런데 양자는 내용이 다르고 대상과 시점도 전혀 관련이 없다. 『일본서기』 관련 기사 가운데 7자가 동일하다고 하여 그 내용 자체까지 지어낸 허구는 전혀 아니다. 실제 제기한 윤색설의 윤색은 과장이나 미화를 가리키는 말이다. 날조나 조작이라는 의미가 아니므로 ‘烽候邸閣’의 실체는 인정하고 있다.

일본인들이 지은 『일본서기』에서 반과국을 미화하거나 과장해야 할 이유가 없다. 왜군은 반과국과의 전쟁에서 참패를 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색설은 사리에 맞지 않은 주장일 수밖에 없다. 다만 『일본서기』 전편에서 나타나는 윤색의 하나일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하여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봉화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E-mail: dhym1216@hanmail.net

대의 존재가 현재까지 무려 120곳이나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봉화망과 방어 방향 등에 대한 논의는 지엽적인 사안에 불과하다. 중요한 사실은 史書의 기록과 물증의 정확한 부합이었다. 이러한 봉화망의 운용 주체는 『일본서기』에 적힌 반과국이었다.

주제어 : 반과국, 대가야, 윤색설, 일본서기, 삼국지, 장수, 봉화망

1. 머리말

‘전북가야’라는 용어는 전라북도 동부 지역에서 가야고분이 확인됨에 따라 가야의 공간적 범위가 전북 동부 지역까지 미친 데서 생성되었다. 물론 ‘전북가야’는 학술적 용어는 될 수 없다. 그렇지만 전라북도 지역 가야의 현상을 가장 쉽게 또 정확하게 표현한 한시적 수단이자 용어였다. 차후의 연구를 통해 ‘전북가야’를 통칭하거나 총칭하는 적절한 용어를 찾아야할 것 같다. 그렇지만 본고에서는 ‘행정지명+가야’ 표기가 역사적 전례가 있음을 적출하였다. 따라서 터무니 없는 용어 조합이 아님을 밝혔다.

사실 ‘전북가야’는 가야는 가야이지만 대가야 중심과는 거리가 있는 또 다른 정치체로 드러났다. 물론 기존의 견해는 『일본서기』나 『양직공도』에 등장하는 반과국을 대가야로 간주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념은 대가야가 연맹의 맹주였기 때문에 대표성을 지니고 국제 분쟁에 등장한다고 믿는데서 비롯하였다. 어디까지나 통념적인 추중에 불과했다.

반과국은 6세기 초에 돌연히 등장했다가 자취를 감추었다. 그런 관계로 존재감이 약한 소국이나 혹은 대가야를 가리키는 멸칭 정도로 치부해 왔다. 그러나 반과국의 존재는 문헌과 고고학적 물증과의 부합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다. 즉 『일본서기』에 적힌 국제 분쟁 속에서 반과국이 倭에 대비하여 烽候와 邸閣을 축조한 기록에서였다(a-3).²⁾ 여기서 봉후는 봉화를 가리킨다. 조선시대의 烽燧와는 달리 연기가 아니라 불을 올리는 烽火를 가리키는 것이다. 통신 수단으로서 봉수의 선행 형태인 봉화의 존재를 想起해야 한다.

그런데 봉화를 올렸던 봉화대가 ‘전북가야’ 지역에서 속속 발견되었고, 발굴 결과 드러난 가야토기를 통해 삼국시대 봉화 현장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문헌

2) 물론 반과국은 백제 등에 대비해 봉후·저각을 설치했지만, 倭와의 긴장 상황이 고조되자 방비를 하였다. 그랬기에, 왜의 입장에서 ‘以備日本’으로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에 보이는 ‘봉후’의 존재는 물론이고, 운용 주체를 장수 지역으로 지목할 수 있었다.³⁾ 봉화의 운용 주체가 장수 지역에 소재한 사실은, 왜에 대비하여 봉후를 축조한 반파국이 장수에 소재한 사실을 반증한다. 이는 움직일 수 없는 확고부동하고도 不可逆的인 사실이었다.

이러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에 따라 대가야는 반파국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장수 지역의 백제 때 행정지명이 반파국과 부합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럼에 따라 가야 고고학, 나아가 한국고고학의 한 페이지를 새로 쓸 수 있는 획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賞讚받아도 모자람이 없을 게 분명하다. 그럼에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뜻하지 않은 현상이 곳곳에서 빚어졌다. 새로운 성과에 대한 의문이나 비판 제기 차원을 넘어, 학계라는 이름의 거대한 카르텔에 의한 독점이나 감성에 의존한 무력화 시도가 조직적으로 펼쳐졌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허심하게 원점에서부터 재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럼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兩者의 접점에서 진실을 만나기를 바라고자 했다. 아울러 반파국 뿐 아니라 기문국에 대한 위상과 위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전북가야’로 통칭되는 전라북도 동부 지역의 가야 세력 중에는 반파국과 더불어 兩強 구도를 이루는 세력이 기문국이었다. 기문국의 위치에 대해서는 신라의 甘文州가 설치된 김천 일원으로 비정하는 舊說에서부터 몇 가지 견해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문국은 기문하와 연관이 깊다고 할 때 섬진강이나 남강의 범위를 넘기는 어렵다. 게다가 기문국은 『양직공도』에서 ‘百濟旁小國’ 가운데 등장하는 ‘상기문’으로 드러났다. 백제 곁의 소국이 경상북도 김천 방면에 소재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측 문헌에서는 기문하의 존재가 섬진강이나 남강권을 벗어난 곳으로 비정할 수 있는 私傳 기록도 보인다. 그러나 일본측 기록은 자체 서로 충돌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 이 보다는 시기가 앞선 唐初 『翰苑』 기록에 무게를 두는 게 자연스러웠다.

반파국과 기문국의 소재지 비정 관련한 새로운 연구 성과로서 전자는 장수, 후자는 남원을 지목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정 역시 고고학적 발굴 성과에 힘입었다. 후자의 경우 두락리와 유곡리 고분이 세계유산 등재에 포함되었을 정도로, 전북 동부의 가야문화권을 대표한다. 따라서 반파국과 기문국은 ‘전북가야’의 兩強 구도를 이루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연구 성과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는

3) 박장근, 2021, 『전북고대문화 역동성』, 서경문화사, 141~146쪽.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막연히 기문국=남원설은, 식민지 시대 일본 학자의 견해라는 주장의 반론 아닌 반론은, 감성에 호소할 반발에 불과할 따름이었다. 책임 있는 연구자라면 감성이 아니라 이성으로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가야토기가 출토된 봉화대를 이런저런 이유를 들이대며 부정하는 주장은 비겁하기까지 하다. 일본 연구자가 찾아낸 동일 문구를 놓고 기상천외한 ‘潤文說’을 제기했다. 그런데 ‘潤文’의 개념이라도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분명한 사실은 6세기 초에는 ‘전북가야’의 맹주가 분명했을 기문국을 제치고 반과국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반과국 힘의 범위는 곧 봉화망의 분포가 말하고 있다. 일개 소국에서는 불필요한 광대한 봉화 체계를 운용했다는 것, 그리고 봉화망의 범위가 광활하고 전라북도 동부 지역에 국한되어 나타났다. 이 사실 대가야와 구분되는 또 다른 정치체의 중심이 반과국이었음을 반증한다.

반과국은 기문국을 종속시킨 후, 내륙수로의 초입에 소재한 다사진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백제 및 왜와 격돌하고, 인접한 신라의 촌락을 초토화까지 했다(a-3). 반과국의 강성을 읽을 수 있는 징표였다. 상륙한 왜군을 처참하게 패퇴시켰고 백제까지 물리쳤기에, 강성한 반과국의 존재를 대가야로 지목했었다. 그러나 봉후 즉 봉화대의 존재가 전라북도 동부 지역에서 나타난 것이다. 봉화는 중심이 소재한 곳이 운영 주체인데, 경상북도 고령과 그 주변에서는 아직까지 삼국시대 봉화대 유적은 확인된 바 없다. 따라서 『일본서기』 기록에서 봉후를 조성하고 운용한 주체가 대가야일 수는 없었다. 게다가 검증 결과 대가야를 반과국으로 일컬은 적도 없었다. 그 밖에 반과국=대가야설의 핵심인 ‘加羅 多沙津(a-6)’은, 대가야가 西進하여 반과국을 제압한 이후의 일이었다.4) 결국 空想에 의한 반과국=대가야설이 그간 득세했음을 알 수 있었다.

반과국 강성 배경은 고대국가의 잠재적 국력의 척도인 제철 단지의 확보였다. 그간의 지표 조사를 비롯한 시굴을 통해 막대한 제철 유적지가 장계분지와 운봉고원에 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5) 이러한 제철 단지는 섬진강이나 남강을 이용해 외부에 공급할 수 있는 好條件을 지녔다. 그런데 國富의 원천이요 國富 資産인 제철 확보는 백제 뿐 아니라 倭가 절실히 탐내었던 소재였다. 이에 대한 방어 기제로서 봉화망이 조성된 것이다. 또 그로 인한 군사적 충돌이 『일본서기』에 기록된 3년 전쟁의 始末이 된다. 『일본서기』 기록의 주체인

4) 이도학, 2019, 「伴跋國 位置에 대한 論議」, 『역사와 담론』 90, 호서사학회, 63~65쪽. 77쪽.

5) 곽장근, 2021, 『전북고대문화 역동성』, 서경문화사, 136쪽. 152~156쪽.

일본인들은 자국의 이익이 걸린 비상한 사안이었기에 수록한 것이다. 『삼국사기』는 기록 자체가 워낙 소략도 하였거니와, 그리고倭 보다는 비중이 떨어진 사건이었고, 또 반파국과 기문국은 자체 기록을 전하지 못하고 멸망하였다. 반파국과 기문국이 일본측 문헌에만 남겨진 배경이었다.

본고에서는 ‘전북가야’에 대한 소견을 피력하고 이에 대한 과거의 의문 제기나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을 망라하여 일종의 答辯書格으로 작성했다.

2. 문헌을 통해 본 ‘전북가야’

전라북도 동부 지역에서 힘을 길러 성장한 반파국은 6세기 초에 이르러 두각을 나타냈다. 반파국의 존재는 응당 주변 국에서 인지하고 있었지만 기록에 남겨질 사유가 부족했지만, 충돌을 통해 그것도 바다 건너 왜에서 전쟁 기사를 남겼다. 왜로서는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비상하게 중요한 사안 속에 전쟁이 놓였음을 반증한다. 이때 반파국이 백제와 영역을 놓고 갈등한 기사는 다음과 같다.

a-1. (백제가) 별도로 아뢰기를 “반파국이 臣의 나라 己汶의 땅을 약탈했습니다. 엿드려 청하오니 天恩으로 판정하여 본국에 속하게 돌아오도록 해 주십시오”(계체 7년 6월 조).⁶⁾

a-2. 冬 11월 辛亥朔 을묘에 조정에서 백제의 姐彌文貴 장군, 斯羅의 汶得至, 安羅의 辛己奚 및 賁巴委佐, 반파의 旣展奚 및 竹汶至 등을 나란히 세우고 恩勅을 奉宣했다. 그리고 己汶·滯沙를 백제국에 내려주었다. 이 달에 반파국이 戢支를 보내 珍寶를 바치고, 己汶의 땅을 애걸하였다. 그러나 끝내 주지 않았다(계체 7년 11월 조).⁷⁾

a-3. 3월에 반파가 子呑·帶沙에 성을 쌓아 滿奚에 연결하였다. 烽候와 邸閣을 두어 일본에 대비했다. 또 爾列比·麻須比에 성을 쌓고, 麻且奚·推封에 연결하였다. 사졸과 무기를 모아 신라를 꺾박했다. 자녀를 몰

6) 『日本書紀』 권17, 繼體 7년 조. “別奏云 伴跛國略奪臣國己汶之地 伏請 天恩判還本屬”

7) 『日本書紀』 권17, 繼體 7년 조. “冬十一月辛亥朔乙卯 於朝廷引列百濟姐彌文貴將軍 斯羅汶得至 安羅辛己奚及賁巴委佐 伴跛旣殿奚及竹汶至等 奉宣恩勅 以己汶滯沙賜百濟國 是月 伴跛國遣戢支 獻珍寶 乞己汶之地 而終不賜”

아내 약탈하고, 村邑을 무자비하게 노략했다. 흉악한 기세가 가해지는 곳에 남는 게 드물었다. 저 포학 사치하고, 괴롭히고 해치며, 침노하고 업신여기니, 배어죽인 게 너무 많아서 상세히 기재 할 수가 없었다(계체 8년 3월 조).⁸⁾

a-4. 春 2월 甲戌朔 정축에 백제가 사자 文貴 장군 등이 귀국하려고 청했다. 이에 勅하여 그 아래 物部連 <闕名> 을 딸려서 돌아가도록 보냈다[百濟本記에서는 物部至至連라고 한다]. 이 달[2월]에 沙都島에 이르러, 전하는 바를 들으니 伴跋人이 (倭)에 원한을 품고 毒을 부리는데, 강한 것을 믿고 포악한 일을 자행한 까닭에, 物部連이 수군 500을 거느리고 곧바로 帶沙江에 들어왔다. 文貴 장군은 신라에서 돌아갔다. 夏 4월에 物部連이 帶沙江에 6일간 머물렀는데, 반과가 군대를 일으켜 가서 정벌했다. 들이닥쳐서 옷을 벗기고, 가진 물건을 강제로 빼앗고, 帷幕을 모두 불질렀다. 物部連 등은 두려워하며 달아났다. 겨우 목숨만 보존하여 汶慕羅[문모라는 섬 이름이다]에 배를 대었다(계체 9년 조).⁹⁾

a-5. 夏 5월에 백제가 前部 木芻不麻甲背를 보내 己汶에서 物部連 등을 맞이해 위로하며 인도 해서 입국했다. 群臣이 각각 衣裳·斧鐵·帛布를 내어놓고, 國物을 보태 넣어서, 조정에 쌓아두고, 은근하게 위문했다. 賞과 祿이 보통보다 많았다. 秋 9월에 백제가 州利即次 장군과 그 아래인 物部連을 보내와서 己汶의 땅을 내려준 데 대해 사례했다(계체 10년조).¹⁰⁾

a-6. 3월에 백제 왕이 下哆唎國守 穗積押山臣에게 말하기를 “대저 조공하는 사자들이 항상 섬의 돌출 부를 피할 때마다[바다 가운데 섬의 굽은 물가를 말한다. 세속에서는 美佐祁라고 한다] 풍파에 고달픉니다.

8) 『日本書紀』 권17, 繼體 8년 조. “三月 伴跋築城於子吞帶沙 而連滿奚 置烽候邸閣 以備日本 得築城於爾列比 麻須比 而桓麻且奚·推封 聚士卒兵器以逼新羅 駟略子女剝掠村邑 凶勢所加 罕有遺類 夫暴虐奢侈 惱害侵凌 誅殺尤多 不可詳載”

9) 『日本書紀』 권17, 繼體 9년 조. “春二月甲戌朔丁丑 百濟使者文貴將軍等請罷 仍勅副物部連 <闕名> 遣罷歸之[百濟本記云 物部至至連] 是月 到于沙都嶋 傳聞 伴跋人懷恨御毒 恃強縱虐 故物部連率舟師五百 直詣帶沙江 文貴將軍自新羅去 夏四月 物部連於帶沙江停住六日 伴跋興師往伐 逼脫衣裳劫掠所齋 盡燒帷幕 物部連等怖畏逃遁 僅存身命泊汶慕羅[汶慕羅 嶋名也]”

10) 『日本書紀』 권17, 繼體 10년 조. “夏五月 百濟遣前部 木芻不麻甲背 迎勞物部連等於己汶 而引導入國 群臣各出衣裳斧鐵帛布 助加國物 積置朝廷 慰問慰懃 賞祿優節 秋九月 百濟遣州利即次將軍 副物部連來 謝賜己汶之地”

이로 인하여 가지고 온 것을 적시고 모두 파괴하여 버리게 합니다. 그러니 加羅 多沙津을 臣이 조공하는 津路로 삼기를 요청합니다”고 하였다. 그러자 押山臣이 듣고 아뢰기를 청했다. 이 달 物部伊勢連父根과 吉士老 등을 보내 나무를 백제 왕에게 내렸다. 이에 가라 왕이 勅使에게 이르기를 “이 나무는 官家를 둔 이래, 臣이 조공하는 나무입니다. 어찌 쉽게 바뀌서 이웃나라에 주 십니까? 원래 지역을 한정해, 封해준 것을 어기는 것입니다”고 말하였다. 勅使 父根 등이 이로 인하여 앞에서 (다사진을) 주기가 어려워, 물러나 大島로 돌아왔다. 별도로 錄史를 보내 扶余에게 주었다. 이 때문에 가라가 신라와 결당해 일본을 원망했다(계체 23년 조).¹¹⁾

위의 인용은 기문과 관련한 반과국과 백제와의 대립 관계, 나아가 왜와 신라의 개입으로 복잡해진 국제 정세를 읽을 수 있다. 위의 기사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지명이 기문이다. 그리고 소위 임나4현의 한 곳인 下哆唎國과 하동향으로 비정하는 다사진과, 대사강이 보인다.

전라북도 동부 지역이 임나제국의 범위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任那는 한국측 사료에서도 보인다. 즉 『광개토왕릉비문』의 ‘任那加羅’¹²⁾, 『일본서기』의 백제 성왕이 왜에 보낸 국서에서 ‘任那諸國’¹³⁾, 『삼국사기』에서 强首의 자신 소개 글귀에 ‘任那加良人’¹⁴⁾이 등장한다. 따라서 任那하면 任那日本府를 연상하는 위축된 심리나 경계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다음의 기사를 살펴보자.

b. 임나국에서 아뢰기를 “臣의 나라 동북에는 三巴汶의 땅이 있습니다. 上巴汶·中巴汶·下巴汶입니다. 지방이 3백 리인데, 토지와 백성 또한 富饒합니다. 신라국과 더불어 서로 다투는데, 피차가 능히 다스리지 못하고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지를 못합니다. 臣은

11) 『日本書紀』 권17, 繼體 23년 조. “春三月 百濟王謂下哆唎國守穗積押山臣曰 夫朝貢使者恒避嶋曲[謂海中嶋曲碕岸也 俗云美佐祢] 每苦風波 因茲濕所齋 全壤無色 請以加羅多沙津爲臣朝貢津路 是以 押山臣爲請聞奏 是月 遣物部伊勢連父根 吉士老等 以津賜百濟王 於是 加羅王謂勅使云 此津從置官家以來 爲臣朝貢津涉 安得輒改賜隣國 違元所封限地 勅使父根等因斯難以面賜 却還大嶋 別遣錄史 果賜扶余 由是 加羅結儻新羅 生怨日本”

12) 李道學, 2020, 『새롭게 해석한 광개토왕릉비문』, 서경문화사, 35쪽.

13) 『日本書紀』 권19, 欽明 15년 12월 조. “上表曰 百濟王臣明 及在安羅諸倭臣等 任那諸國 早岐等奏 以斯羅無道 不畏天皇 與狛同心”

14) 『三國史記』 권46, 强首傳.

장군에게 영을 내려 이곳을 다스리게 하여 귀국의 부가 되기를 청합니다”고 하자 천황이 크게 기뻐했다.¹⁵⁾

위의 巴汶은 『續日本後紀』에 따라 ‘己汶’으로 바로 잡고 있다.¹⁶⁾ 869년에 저술된 『속일본후기』의 837년 해당 조목에는 ‘三己汶’이 다음과 같이 보인다.

- c. 己未 … 右京人 左京亮 從5位上 吉田宿禰書主, 越中介 從5位下 吉田宿禰高世 등에게 興世朝臣의 성을 내려 주었다. 시조 鹽乘津은 倭인이었는데, 후에 나라의 명에 따라 三己汶에 가서 살았다. 그 땅은 마침내 백제에 예속되었다. 鹽乘津의 8세손인 달솔 吉大尙과 그의 아우 少尙 등은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잇달아 우리 조정에 왔다. 대대로 의술을 전수하였고 아울러 문예에 통달하였다. 자손은 奈良京田村里에 거주하였으므로 吉田連의 성을 주었다.¹⁷⁾

위의 기사는 吉田連 가문의 전승을 토대로 한 것인 만큼 과장이 많은 관계로¹⁸⁾ 액면대로 믿을 수는 없다. 그러나 지명을 비롯한 현장의 사실은 수용하는 게 온당할 것 같다. 먼저 三己汶은 상기문·중기문·하기문을 상징하는 게 가능하다. 『양직공도』에도 백제 곁의 소국 가운데 ‘상기문’이 보인다. 따라서 기문이라는 지역을 3곳으로 구분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원』에서 「括地志」를 인용한 백제의 江에 대한 다음 서술이 유의된다.

- d-1. 웅진하의 근원은 나라 東界에서 나와 서남으로 흐르다가, 나라 북쪽으로 백리를 지나, 또 서쪽으로 흘러 바다에 들어간다. 넓은 곳은 300步이며, 그 물은 지극히 맑다.
- d-2. 또 基汶河가 나라에 있다. 근원은 그 나라 남쪽의 산[南山]에서 나와

15) 『新撰姓氏錄』左京皇別下, 吉田連. “大春日朝臣同祖 觀松彥香殖稻天皇[諡孝昭] 皇子天帶彥國押人命四世孫彥國菴命之後也 昔磯城瑞籬宮御宇御間城入彥天皇御代 任那國奏曰 臣國東北有三巴汶地[上巴汶中巴汶下巴汶]地方三百里 土地人民亦富饒與新羅國相争 彼此不能攝治兵戈相尋 民不聊生臣請將軍令治此地 即為貴國之部也 天皇大悅 敕群卿 令奏應遣之人卿等奏曰 彥國菴命孫鹽垂津彥命 頭上有贅三岐如松樹”

16) 朝鮮總督府, 1932, 『朝鮮史(日本史料)』, 朝鮮印刷株式會社, 5쪽.
佐伯有清, 1982, 『新撰姓氏錄の研究 考證篇 第二』, 吉川弘文館, 29쪽.

17) 『續日本後紀』권6, 仁明天皇 承化 4년 6월 己未 條. “己未…右京人左京亮從五位上吉田宿禰書主 越中介從五位下同姓高世等 賜姓興世朝臣 始祖鹽乘津 大倭人也 後順國命 往居三己汶地 其地遂隸百濟 鹽乘津八世孫 達率吉大尙 其弟少尙等 有懷土心 相尋來朝 世傳醫術 兼通文藝 子孫家奈良京田村里 仍元賜姓吉田連”

18) 今西龍, 1937, 『朝鮮古史の研究』, 近澤書店, 375~390쪽.

동남으로 흘러 大海에 들어간다. 강 안의 水族들은 중국과 동일하다.¹⁹⁾

웅진하는 장수에서 발원한 금강 수계의 흐름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기문하에 대해서는 섬진강설이 대세이지만 남강설도 제기되었다.

1) 반파국의 위치와 의미

실학의 鼻祖인 星湖 李瀾은 최초로 가야의 범위를 전라북도 동부까지 확장했다.²⁰⁾ ‘전북가야’의 탄생이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역사서 『일본서기』와 중국 梁의 『양직공도』, 이 2곳에서만 등장하는 伴跋國이 주목된다. 전자에서는 513년~515년까지 3년간, 시점이 521년인 후자에서는 ‘叛波’로 적혀 있다. 6세기 초에 돌연히 등장한 반파국은 521년경 ‘백제 곁의 소국’으로 전락한 후 곧 사라졌다.

그렇다고 반파국은 6세기 초에 생겨나지는 않았다. 지금의 섬진강 하구 하동향을 가리키는 다사진에 대한 지배권 문제와 더불어, 반파국이 기문국을 병합한 데 따른 이해 충돌로 기록되었을 뿐이다. 반파국은 쳐들어 온 백제와倭의 군대를 치참하게 격파했고, 신라의 촌락을 습격해 초토화시켰다. 반파국은 1 : 3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그러면 백제와 왜 그리고 신라가 반파국과 충돌한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그것도 3년을 끌 정도로 힘겨운 승부였다. 물론 반파국이 이들 삼국의 이익을 침해했기에 ‘삼국간섭’이 발생한 것은 자명하다.

반파국의 영향력과 소재를 가늠할 수 있는 요체는 섬진강 하구 다사진이었다. 섬진강 물길은 수송로 역할을 했다. 이 무렵 반파국은 봉화망을 운용하였다. 통신 수단인 봉화는 경보 체계의 작동을 뜻한다. 그리고 봉화대는 일정한 영역을 전제로 한 단일한 정치체에서 구축 가능한 시설이었다. 현재까지 드러난 120곳 봉화망의 종착지는 정치적 중심지인 동시에 봉화를 운영하는 주체였다.²¹⁾ 이처럼 광대한 봉화망은 『일본서기』는 물론이고 『신찬성씨록』에 적힌 3

19) 『翰苑』 권30, 蕃夷部 百濟. “括地志曰 熊津河源出國東界 西南流 經國北百里 又西流入海 廣處三百步 其水至清 又有基汶河在國 源出其國南山 東南流入大海 其中水族與中夏同”

20) 『星湖全集』 제26권, 書, 答安百順 丙子. “新羅始有洛東江以東 其西卽六伽倻之地 而弁韓在其南 必是智異以南諸郡 恐跨居今慶尙全羅諸郡…或今全羅道東南諸郡皆弁韓之地耶 此可以傳疑”

21) 이와 관련해 “이러한 봉수에 대한 연구가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지표 조사라는 사실이

기문의 영역 300리와 부합한다.

섬진강 하구는 반파국이 남해로 나가는 수송 관문이었다. 이와 연계된 운봉고원과 장계분지에서는 막대한 제철 유적이 확인되었다.²²⁾ 왜까지도 비상하게 신경을 쏟은 전략 물자가 鐵이었다. 당시 반파국은 운봉고원의 기문국을 병합할 정도로 기세를 올렸다. 그러한 반파국의 소재지로는 고총고분과 제철산지가 밀집한데다 봉화망의 종점인 장수를 지목하는 게 자연스럽다.²³⁾

지금까지는 반파국을 경상북도 성주나 고령으로 지목했었다. 이 설은 술한 문제점을 지녔지만 몇 가지만 적시한다. 첫째, 『삼국지』 동이전의 변진 半路國이 伴跛國의 刊誤라면, 단 한 건의 異本도 없이 모두 ‘반로국’이라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둘째, 479년에 加羅(대가야)는 南齊의 책봉국이었기에 ‘백제 결의 소국’인 반파국과는 관련 지을 수 없다.²⁴⁾ 셋째, 반파국은 ‘임나국의 別種(『釋日本紀』)’이었기에 本種인 대가야와는 무관하다. 넷째, 『일본서기』에서 가라의 훈독은 ‘가라 카라’이지만, 반파는 ‘하해 ハハ’였다. 양자는 서로 다른 별개의 국가였다. 다섯째, 장수군 일원의 백제 때 행정지명인 伯海의 『전운옥편』 음인 ‘파해’는, 반파 음가인 ‘하해’와 연결되고, ‘하해’에 탁음을 붙이면 ‘파해 바へ’가 된다. 따라서 반파국은 장수군 장계면의 백제 때 행정지명 ‘백해(파해)’와 닿는다.

다. 기초 조사에 불과한 지표 조사를 통해 107개소 정도의 봉수로 추정할만한 곳이 나왔다면 더욱 세밀한 정밀 조사를 토대로 봉수의 유무와 연대의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 왜 1,500년 전의 봉수라는 것인지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절실하다. 따라서 필자가 이 부분을 철저히 지적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의미를 격하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논의를 전개하였고, 발굴 조사 성과와 지표 조사 결과가 어긋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120곳 봉화대의 성격을 동질하게 규정하는 게 가능해졌다. 더욱이 이곳의 봉화대가 삼국기 이후에 조성된 근거는 물론이고 역사적 정황도 없었기 때문이다.

- 22) 혹자는 “장수군을 비롯한 몇몇 지역에서 제철 유적이 발굴되었다고 보고하였으나 대부분은 가야 시대로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다”고 단언했다. 이 件은 차후의 발굴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우선 이곳의 제철 유적지는 고려나 조선의 문헌에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폐광의 결과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오히려 고려 이전 삼국기 제철 유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듯하다.
- 23) 이와 관련해 “고총고분의 유무가 그 지역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지표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따지면 ‘반파’나 ‘기문’이 아니더라도 물질자료의 존재 여부로 전북 지역에 독자적인 가야 관련 세력의 구축을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그런데 고고학상 고총고분의 유무는 권력 결집의 표상이지 않은가? 그리고 반파와 기문을 제외한 ‘전북 지역에 독자적인 가야 관련 세력의 구축’ 사례를 제시해 주면 좋겠다.
- 24) 이도학, 2021, 『문헌으로 검토한 반파국 비정파 그 역사성』, 『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반파가야』, 호남고고학회, 27~28쪽.

문헌과 물증을 통해 장수가야는 가야의 빅(Big)4인 반파국으로 밝혀졌다. 반파국이 백제와 경쟁하면서 왜에 보낸 ‘珍物’은 경제력과 독자 교역망 구축을 헤아리게 한다. 천 오백년간이나 묻혀졌던 제3의 가야, 반파국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필요한 시점이다.²⁵⁾

관련 논지를 하나만 더 추가한다. 즉 백제와 충돌했던 반파국은 515년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 반면, 백제와의 충돌 현장인 다사진의 소유국으로 加羅가 등장했다. 이를 근거로 반파국과 가라를 동일시하였다. 게다가 왜에 사신으로 온 ‘伴跋 既展奚’(계체 7년 11월 조)와 ‘加羅 古殿奚’(흥명 2년 4월 조)가 동일 인물이라는 데서 근거를 찾았다.²⁶⁾ 그러나 양자 간의 시점은 513년과 541년으로 시차가 무려 28년이나 된다. 그럼에도 기전해와 고전해 모두 ‘고텐케이 こでんけい’로 읽혀지므로 동일한 인물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소속국인 반파와 가라는 동일 국가라는 것이다.²⁷⁾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순전히 불확실한 추측에 근거하였다.

동일한 『일본서기』 계체 7년 11월 조에 등장하는 인명 賁巴委佐의 훈독은 ‘ほんはわさ’이다. 이에 대해 “賁은 古寫本の 傍注에 따라 ‘ホン’으로訓했다. 그러나 … 따라서 이 인명을 훈하는 방법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²⁸⁾고 했다. 이렇듯 賁巴委佐의 훈독 ‘혼하와사’는 현대 연구의 결과물일 뿐 전승된 표기만은 아니었다. 더구나 異論이 많아서 옳은 훈독 여부도 확정짓지 못하였다. 이러한 賁巴委佐에 잇대어 적혀 있는 ‘既展奚’에 대해서는 “既를 ‘고 코’로 읽은 것은, 巨勢를 既洒로 쓴 예들이 있기 때문이다.”²⁹⁾고만 적어놓았다. 既展奚를 ‘고텐케이’로 읽은 것은 ‘古寫本の 傍注’에 따른 것도 아니었다. 어디까지나 용례에 따른 推讀이었다. 既展奚=고텐케이 훈독의 한계를 말해주고 있다. 결국 기전해와 고전해에 함께 붙은 훈독 ‘고텐케이 こでんけい’는 가변성을 지닌 것이다.

이와는 달리 전통적인 훈독을 보전하고 있는 『釋日本紀』에 따르면, ‘伴跋 既展奚’는 ‘기텐케이 キテンケイ’, ‘加羅 古殿奚’는 ‘고텐케이 コテンケイ’로 각각 읽었다.³⁰⁾ 조선사편수회에서 간행한 『朝鮮史(日本史料)』에서도 既展奚는

25) 이도학, 2021.5.6, 「장수가야가 반파국인 이유」, 『전북일보』 10면. 관련한 봉화대 숫치는 본고에서 최근 숫자로 기재하였고, 일부는 脚註도 추가했음을 밝힌다.

26) 井上光貞 外 校注, 1994, 『日本書紀(三)』, 岩波書店, 183쪽 註4.

27) 金泰植, 1993, 『加耶聯盟史』, 一潮閣, 102쪽.

28) 井上光貞 外 校注, 1994, 『日本書紀(三)』, 岩波書店, 183쪽 註3.

29) 井上光貞 外 校注, 1994, 『日本書紀(三)』, 岩波書店, 183쪽 註4.

30) 『釋日本紀』 권17, 秘訓2, 第十七.

‘기텐케이 키텐케이’로 혼독했다. 그리고 古殿奚’는 ‘고데무케이 코テム케이’로 혼독하였다.³¹⁾ 어떻게 보든지 兩者의 漢字 표기는 물론이고 혼독마저 相異했다. 그러니 양자는 서로 다른 인물로 보아야 한다. 이처럼 既展奚나 古殿奚와 유사한 이름은 ‘加羅國王妹 既展至’³²⁾의 既展至에서도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³³⁾ 따라서 대가야=반과국설의 핵심 논거가 무너진 것이다.

2) 기문국의 위치와 의미

반과국과 백제 및 왜와의 분쟁에서 싹뿔 비치는 소국이 기문국이었다 (a-1·2·5). 이러한 기문국의 위치는 다음 사료에 근거하여 제기되었다.

e. 旁小國有叛波·卓·多羅·前羅·斯羅·止迷·麻連·上巴汶·下枕羅等附之(『양직공도』)

f. 우륵이 12曲을 만들었는데, 첫째 下加羅都, 둘째 上加羅都, 셋째 寶伎, 넷째 達已, 다섯째 思勿, 여섯째 勿慧, 일곱째 下奇物, 여덟째 師子伎, 아홉째 居烈, 열째 沙八兮, 열한째 爾赦, 열두째 上奇物이라고 했다.³⁴⁾

b. 臣의 나라 동북에는 三巴汶의 땅이 있습니다. 上巴汶·中巴汶·下巴汶입니다(『신찬성씨록』).

c. 三己汶(『속일본후기』)

d-2. 基汶河(『한원』)

『양직공도』의 ‘上巴汶’ 뿐 아니라, ‘上奇物’(『삼국사기』)과 ‘基汶河’(『翰苑』), 『新撰姓氏錄』의 ‘上巴汶’, 『續日本後紀』의 ‘三己汶’이 보인다. 이를 토대로 上

『釋日本紀』 권18, 秘訓3, 第十九.

31) 朝鮮史編修會, 1932, 『朝鮮史 第一編第二卷(日本史料)』, 朝鮮總督府, 113쪽. 132쪽.

32) 『日本書紀』 권9, 神功 62년 조. “加羅國王妹 既展至”

33) 이상의 서술은 이도학, 2021, 『문헌으로 검토한 반과국 비정과 그 역사성』, 『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반과가야』, 호남고고학회, 28~29쪽에 의했다.

34) 『三國史記』 권32, 雜誌1, 樂. “于勒所製十二曲 一曰下加羅都 二曰上加羅都 三曰寶伎 四曰達已 五曰思勿 六曰勿慧 七曰下奇物 八曰師子伎 九曰居烈 十曰沙八兮 十一曰爾赦 十二曰上奇物”

己汶·中己汶·下己汶을 상정할 수 있다. 이곳은 모두 동일 지역을 가리킨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듯하지만 또 그렇지만 않아 보인다. 검증해 보기로 한다.

『양직공도』의 ‘上巴文’을 上己汶과는 다른 세력으로 간주하는 주장도 있지만 당치 않다.³⁵⁾ 현전하는 『양직공도』 자체도 梁代 작품이 아니다. 그로부터 무려 540여 년이 지난 北宋代인 1077년에 작성한 摹本에 불과하기 때문에 傳寫 과정에서 술한 誤記가 빚어졌다. 실제 『양직공도』에서 2회 등장하는 檐魯는 ‘檐魯’으로 표기하였는데 모두 오기였다. 심지어 『양직공도』에 3회 등장하는 고구려는 駒麗·高句麗·高麗로 제 각각 표기이다. 이 사실은 『양직공도』가 傳寫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誤記가 빚어졌는지를 웅변해준다. 게다가 ‘上巴文’의 ‘巴’字는 誤記가 극심한 대표적인 字形이다. 가령 “참언을 듣고 충량한 신하들을 해하지 말지어다. 자신의 덕을 닦고 나라의 정치를 세우면(毋聽讒以害忠良 于以修己德)”³⁶⁾과 “기미에 신라왕이 上書하여 이르기를(己未羅王 上書曰)”³⁷⁾에 등장하는 ‘修己’와 ‘己未’의 ‘己’字를 판본에는 모두 ‘巴’로 새겼다. 비록 ‘修巴’와 ‘巴未’로 새겼지만 誤記임은 재언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사례는 『삼국사기』 정덕본에서도 대가야 樂師 이름을 干勒·千勒·于勒 3종류로 표기했듯이 비일비재하였다. 그래서 校閱이 필요한 게 아니겠는가?

그러면 己汶의 지리 비정을 시도해 본다. 己汶이라는 강물과 관련 있을 기문국 위치 비정에 대해서는 크게 분류하면 甘文(김천)說과 古龍(남원)說, 그리고 장수 변암설과 남원 운봉고원설 등으로 나뉘어진다. 전자는 甘文國과 今勿縣이라는 소국명과 신라 영역 이후 행정지명에서 기인한다.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제기되었다.³⁸⁾ 이와 더불어 『한원』의 기문하에서 기문국 국명이 유래했다고 할 때, 더욱 감문설은 따르기 어렵다. 기문하는 섬진강이나 남강을 제외하고는 상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e에서 보듯이 백제 결의 소국인 ‘上巴文’ 즉 ‘上己汶’이 6세기대까지 김천 지역에 소재할 수는 없다. 물론 임나의 동북에 소재했다는 ‘三巴汶(b)’을 낙동강과 결부 지을 수는 있다. 그렇더라도 임나의 기준을 고령으로 잡는다면 감문국은 서북이나 북쪽에 해당한다. 방향이 맞지 않은 것이다. 임나의 기준을 가야 고분이 확인된 그 서쪽

35) 이도학, 2021.11.5, 『임나와 기문국에 대한 몇 가지 의문--최근 제기된 견해에 대한 검토』 『남원 가야유적의 역사적 성격』, 전북사학회, 7~27쪽. 현장 공개 발표용 PPT 자료.

36) 『高麗史』 권137, 昌王, 즉위년 6월.

37) 『高麗史』 권2, 太祖 18년 11월.

38) 김태식, 1993, 『加耶聯盟查』, 일조각, 118쪽.

끝인 순천 운평리 고분을 기준한다면, 삼기문은 섬진강유역이 된다. 더욱이 김천 남쪽의 성산가야로 운위된 성주 지역도 5~6세기에는 신라 영역으로 지목하는 게 고고학상 대세를 이룬다. 그러므로 김천 일대를 임나의 공간적 범주로서 기문국과 연결시키기는 어렵다. 이를 기록한 私傳記의 신뢰성도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³⁹⁾ 따라서 기문국=감문설은 성립이 어렵다.

그 밖에 기문국을 임실읍의 동남부 지역인 장수군 변암면 지역으로도 비정한다.⁴⁰⁾ 그러한 근거는 다음 기사에 있다.

g. 靑雄縣은 본래 백제 居斯勿縣으로 경덕왕이 改名하였다. 지금은 巨寧縣이다.⁴¹⁾

기문국을 변암면으로 비정하는 근거는 居斯勿縣의 居斯勿이 기문과 音似하다는 데 있다. 아울러 김태식은 임실읍 동북에 소재한 5세기 중엽으로 편년되는 관촌면 금성리 고분군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러한 석곽묘군 중의 하나인 금성리 A호분에서 출토된 “고배는 너무 조잡하여”⁴²⁾라고 했다. 이곳을 기문국이라는 소국의 지배 거점과 연결 짓기는 너무 취약하다. 오히려 거사물 즉 ‘것물’과 기문은 상당히 유사하지만, 소국 지배자의 존재를 입증하는 고총고분군의 不存이라는 한계를 드러냈다.

반면 古龍(남원)說에서는 백제 古龍郡의 원래 이름인 ‘Ko-mil’은 기문과 연결된다.⁴³⁾ 기문국=장수 변암설을 제기한 김태식도 기문국=남원설의 개연성은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⁴⁴⁾ 그런데 기문국=남원설은, 기문국=장수 변암설에서 제시하지 못한 고총고분의 존재를 밝혔다. 따라서 기문국=남원설은 음운상의 연결뿐 아니라 고고학적 물증의 제시를 통해 가장 타당성이 높은 비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실제 古龍의 ‘Ko-mil’과 己汶의 『일본서기』 훈독인 ‘고몬’과도 연결이 가능하다. 게다가 삼기문은 섬진강 상류와 인접한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월산리·청계리 등의 中古塚 고분이 소재한 운봉고원 일원과 연결된다.⁴⁵⁾

39) 今西龍, 1937, 『朝鮮古史の研究』, 近澤書店, 378~379쪽.

40) 김태식, 1993, 『加耶聯盟查』, 일조각, 122~124쪽.

41) 『三國史記』 권36, 地理3, 신라 任實郡. “靑雄縣 李百濟居斯勿縣 景德王改名 今巨寧縣”

42) 김태식, 1993, 『加耶聯盟查』, 일조각, 122~123쪽.

43) 今西龍, 1937, 『朝鮮古史の研究』, 近澤書店, 388~390쪽.

44) 김태식, 1993, 『加耶聯盟查』, 일조각, 122쪽.

45) 郭長根, 2011, 「전북지역 백제와 가야의 교통로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63, 99쪽. 전상학, 2020, 「고고자료와 문헌으로 본 삼기문국」, 『전북가야심포지움』, 전북연구원, 74~78쪽.

3) ‘전북가야’ 비판 견해 검증

(1) 윤색설

반과=장수설의 주요 근거인 ‘置烽候邸閣’ 등의 기사는 중국 고전 등에 의해 윤색되었을 수 있으므로, 백승옥은 “‘置烽候邸閣’의 사실성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⁴⁶⁾고 했다. 문제는 潤色이 팩트, 즉 사실 자체를 창작했느냐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별개의 성질이라는 것이다. 이 점을 유의해 접근하는 게 좋을 듯하다. 윤색의 사전적 의미는 “① 본디의 내용보다 과장되게 꾸며지거나 미화되다 ② 어떤 사실을 본디의 내용보다 과장되게 꾸미거나 미화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윤색은 과장과 미화가 덧붙여지지만 실체가 있다는 의미가 된다. 윤색은 없는 사실을 만든 조작이나 날조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따라서 ‘置烽候邸閣’ 기사 역시 꾸며져 품격 있게 치장은 했을 수 있다 하더라도, ‘烽候’가 설치된 자체는 사실이 아니겠는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다시금 윤색설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해 보겠다.

문헌에서는 문장의 구절이 동일한 경우가 보인다. 이러한 경우는 우연의 일치거나 아니면 뒤에 생성된 자료가 선행 자료를 轉載했을 때 발생한다. 게다가 高雅한 표현이나 격조 있는 구절을 옮겨 쓰는 경우가 많다. 「광개토왕릉비문」에도 유교 경전의 문구를 적용한 경우가 드러난다. 儒經으로써 메시지의 권위와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목적에서였다.⁴⁷⁾ 그럼으로써 문장의 품격을 올리려는 방편이기도 했다. 윤색설은 다음에 인용한 『일본서기』 계체 8년 3월 조의 ‘烽候邸閣’ 구절을 지칭하고 있다. 이 구절은 앞서 인용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다시금 인용하여 수록했다.

a-3. 3월에 반과가 子吞·帶沙에 성을 쌓아 滿奚에 연결하였다. 烽候와 邸閣을 두어 일본에 대비했다. 또 爾列比·麻須比에 성을 쌓고, 麻且奚·推封에 연결하였다. 사졸과 무기를 모아 신라를 핏박했다. 자녀를 몰아내 약탈하고, 村邑을 무자비하게 노략했다. 흉악한 기세가 가해지는 곳에 남는 게 드물었다. 대저 포학 사치하고, 괴롭히고 해치며, 침노하고 업신여기니, 베어죽인 게 너무 많아서 상세히 기재할 수가 없었다.

三月 伴跛築城於子吞·帶沙 而連滿奚 置烽候邸閣 以備日本 得築城於爾列

46) 백승옥, 2020, 「반과국 위치 재론」, 『전북사학』 58, 102쪽.

47) 李道學, 2018, 「三國時代의 儒學 政治理念에 의한 統治 分析」, 『韓國史研究』 181, 8~17쪽.

比·麻須比 而緡麻且奚·推封 聚士卒兵器以逼新羅 駟略子女剝掠村邑 凶勢所加 罕有遺類 夫暴虐 奢侈 惱害侵凌 誅殺尤多 不可詳載⁴⁸⁾

그런데 위의 구절에 보이는 ‘置烽候邸閣 以備日本’이 『三國志』張既傳의 ‘置烽候邸閣 以備胡’ 구절과 동일하므로 潤色이라는 것이다. 양쪽 사서의 관련 구절이 동일함은 이미 井上光貞이 언급한 바 있다.⁴⁹⁾ 이와 관련한 『삼국지』張既傳의 관련 구절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h. 遂上疏請 與儒治左城 築障塞 置烽候邸閣 以備胡 西羌恐 率衆二萬餘落 降⁵⁰⁾

위의 문구는 張既가 羌族을 격파한 후 강족을 물리쳤던 夏后儒와 함께 상소하여 청하면서, 左城을 다스리며 障塞를 쌓고 烽候와 邸閣을 설치하여 胡를 방비하겠다고 올린 疏이다. 그런데 이 문장의 ‘置烽候邸閣 以備胡’ 구절이 『일본서기』 ‘置烽候邸閣 以備日本’ 구절과 동일하다. 마치 ‘胡’를 ‘日本’으로 바꾼 것처럼 비친다. 이 점에 착목해 『일본서기』 찬자가 張既傳을 윤색했다는 것이다. 즉 轉載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양 구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a-3. 伴跛築城於子吞·帶沙 而連滿奚 置烽候邸閣 以備日本 得築城於爾列比 ·麻須比 而緡 麻且奚·推封 …

h. 與儒治左城 築障塞 置烽候邸閣 以備胡 西羌恐 率衆二萬餘落降

양자를 비교하면 『일본서기』의 관련 구절은 39字이고, 『삼국지』의 관련 구절은 26字이다. 이들 구절 가운데 7字가 동일하다. 이 구절은 전후 문맥을 살펴야 마땅함에도 고작 7字的 동일한 글자를 놓고 윤색설을 제기한 것이다. 『일본서기』에서 이 글자는 한 문장의 17.9%에 불과하다. 문장의 5분의 1도 되지 않을뿐더러, 양자는 시점과 주체와 대상이 전혀 다르다. 내용이 서로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니 단순히 동일한 구절이 보인다고 윤색설을 제기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동일한 구절이 보인다고 해 윤색은 아니다. 가령 『삼국지』에서 “越爲流矢所

48) 『日本書紀』 권17, 繼體 8년 조.

49) 井上光貞 外 校注, 1994, 『日本書紀(三)』, 岩波書店, 187쪽 註13.

50) 『三國志』 권15, 張既傳.

中死(권8, 公孫璘傳)”라고 했는데, 동일한 구절은 “觀獵時步卒二人爲流矢所中 卽斃(『세조실록』 7년 3월 18일)”에도 보인다. 그리고 『삼국사기』 고국원왕 41년 조에서 “王出師拒之 爲流矢所中 … 薨”라고 하였다. 이와 동일한 구절이 『삼국사기』 온달전에서 “爲流矢所中”라고 했다. 그렇다고 온달전이 고국원왕 41년 조를 윤색한 것은 아닐 것이다. 『고려사』 김경손전에도 “又恐爲流矢所中 皆不用弓矢”라고 하여 동일한 구절이 보인다. 역시 김경손전이 온달전을 윤색한 것은 아니었다. 그 밖에 “達生爲流矢所中(『태종실록』 7년 12월 25일)”에도 동일한 구절이 보이지 않은가?

그리고 烽候와 함께 나란히 기재된 『일본서기』의 ‘邸閣’은, 『삼국지』 왜인 조의 여왕국에 대한 설명 중에 “收租賦 有邸閣”라고 하여 보인다. 따라서 『삼국지』를 참조하였던 『일본서기』 찬자에게 ‘置烽候邸閣’은 익숙한 구절일 수 있다. 『일본서기』에서 선행 사서의 구절, 그것도 단 7자가 동일하다고 해 전제는 아닌 것이다. 내용상의 전개와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백승욱 등이 제기한 윤색의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윤색의 자전적 의미는 “어떤 사실을 본디의 내용보다 과장되게 꾸미거나 미화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한다. 윤색은 과장과 미화된 표현을 가리킨다. 이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거짓으로 꾸밈’의 뜻을 지닌 ‘날조’와는 전혀 의미가 다른 것이다. 윤색은 과장과 미화되었지만 어떤 실체가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러면 『일본서기』 계체 8년 3월 조 ‘烽候邸閣’ 구절의 윤색 여부를 다시금 살펴본다. 이 문장은 작문 주체가 일본이다. 『일본서기』 찬자가 해당 구절을 굳이 『三國志』 張既傳에서 전제하여 윤색하려고 해도 자국에 득이 되는 구절은 아니었다. 윤색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과장과 미화하여 서술하는 것이다. 반과국이 왜와 대결하는 구절을 윤색하여 일본에 득이 될 것도 없을뿐더러, 반과국과의 전쟁에서 倭가 패했으므로 적대적인 반과국을 미화하거나 과장되게 기록할 이유가 없다. 물론 왜가 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과시할 목적에서 반과국의 강성을 드러내게 할 필요는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반과국의 軍勢를 부풀리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 ‘以備胡’와 ‘以備倭’ 구절이 들어간 우리나라 문헌을 다음과 같이 인용해 본다.

- i-1. 塹隍土以爲築道 掘隍使深 以備胡馬之來(『重峰集』 朝天日記)
- i-2. 北邊請益兵以備胡(『梧里集』 遺事)
- i-3. 然秦徒知長城之可以備胡(『良翁集』 河道論)

- i-4. 中山設此關以備胡(『燕巖集』 駟汎隨筆)
- i-5. 然築城以備胡(『華西先生文集』 崔鴻錫錄)
- i-6. 皇太子勇屯兵咸陽 以備胡(『撫松軒先生文集』 太子帥師古典)
- j-1. 置臨海·長領二鎮 以備倭賊(『삼국사기』 소지 마립간 15년)
- j-2. 城金州 以備倭寇(『고려사절요』 고종 38년)
- j-3. 又請留合浦鎮戍軍 以備倭寇(『고려사절요』 충렬왕 4년)
- j-4. 築城以備倭(『여유당전서』 목민심서 권12, 工曹六條, 修城)

중국에서 胡에 대비해 축성하고 屯兵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연동한 시설이 곡량을 저장하는 창고의 설치가 된다. 그런데 ‘置烽候邸閣’라는 문구를, 없는 사실의 날조가 아닌 윤색으로 간주했다. 실체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구절이 윤색 이전에 원래 어떤 문구였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사실은 ‘烽候’의 실체가 되는 봉화대가 현재까지 최소 120 곳이나 확인되었다. 따라서 『일본서기』 계체 8년 3월 조와 『三國志』 張既傳의 관련 구절의 유사성을 대비하는 일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계체 8년 3월 조 ‘烽候’ 기사는 『일본서기』 찬자의 탁상안출이 아니라 실체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윤색은 집필 주체가 과장하고 미화하는 법이다. 그런데 일본이 반과국의 봉후 저작 설치를 과장하고 미화해주는 표현을 구사할 이유가 없다. 백승옥 등이 제기한 윤색은 어법에 맞지 않은 용어 사용이다. 만약 윤색이라면 윤색 이전에 어떤 글귀가 들어가 있어야 맞나? 그리고 『일본서기』 기록과 부합한 가야시대 봉화대는 기록의 잘못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봉후 기록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아야 하나? 윤색설 논자들에게 되물어야 마땅한 질문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서기』 연구에서의 성과를 소개해 본다. 『고사기』와 비교되는 『일본서기』의 큰 특징은 漢文風의 윤색이었다. 즉 文章을 修飾하기 위해 중국 古典의 成句를 차용하였다.⁵¹⁾

『일본서기』 곳곳에는 중국에서 건너 온 漢籍에 근거한 윤색이 나타나고 있다. 역사서 가운데는 『漢書』가 가장 많이 이용되었지만, 『삼국지』도 윤색에 이용되었다. 그리고 短語短句는, 『일본서기』 찬자가 중국 문헌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평생 암기했던 것을 이용한 것에 불과했다. 이와 더불어 주목해야 할 사안은, 중국 사서에서는 先行 사서의 문장을 거의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後出

51) 坂本太郎, 1980, 『解説』, 『日本書紀 上』, 岩波書店, 18~19쪽.

사서의 일반적인 作述 태도였다. 이와 동일하게 『일본서기』가 중국 문헌의 문장을 당당하게 활용하는 것은, 결단코 現代風의 盜作이나 剽竊의 의미를 지닌 것은 아니었다. 典故가 있는 문장을 이용한 것은, 선진국인 중국의 풍토였다.⁵²⁾

따라서 거듭 말하지만 윤색은 원문을 놓고 좀더 高雅한 成句로 각색하는 것이다. 만약 ‘置烽候邸閣’ 구절이 윤색이라면 원문은 어떤 내용인지 묻고 싶다. 『일본서기』 찬자가 이 구절을 윤색했다면 특별히 반파국 관련 기사를 윤색해 줘야 할 이유는 뭘지? 그리고 전재냐? 윤색이냐는 문제도 구명해야 한다. 내용이 동일하여 전재한 것이냐? 아니면 문구가 좋아서 전재한 것이냐?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轉載’는 이미 지면에 발표되었던 글을 다시 다른 지면에 옮겨 게재한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일본서기』 관련 구절은 서로 내용상의 동질성이 전혀 없다. 전재는 될 수 없다. 굳이 말한다면 『일본서기』가 『삼국지』의 成句를 옮겨 온 것 정도는 가능하다. 그렇다고 사실 왜곡은 전혀 아닌 것이다.

그리고 백승옥은 “‘置烽候邸閣’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최초의 봉수 기록이 된다”고 하면서, “장수군에서 시·발굴된 봉화유구가 삼국시대 6세기 초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자신이 없다”⁵³⁾고 하였다. 문헌 사학자인 본인이 ‘판단할 자신이 없다’고 하여 가야 봉화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뉴앙스로 비치게 해서는 안된다. 분명한 것은 삼국시대에 봉화가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6세기대 한씨미녀와 고구려 안장왕과의 로맨스를 담고 있는 王逢縣과 達乙省縣 지명 유래가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즉 “達乙省縣은 漢氏美女가 높은 산마루에서 烽火를 올려놓고 安臧王을 맞이한 곳인 까닭에 뒤에 高烽이라 이름했다”⁵⁴⁾고 하여 봉화를 올린 기록이 보인다. 실제 현장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고봉산에는 봉화터가 남아 있다. 그리고 ‘烽候’는 “且明烽候”⁵⁵⁾라고 하였듯이 ‘밝히는 것’ 즉 불을 올리는 것이다.

(2) 백제학회 학술대회 주장

2021년 6월 4일에 백제학회 주관 ‘백제와 가야의 경계와 접점’이라는 주제의 학술대회가 있었다. 필자는 본 학술대회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전북일

52) 小島憲之, 1980, 『解説』, 『日本書紀 上』, 岩波書店, 19~23쪽.

53) 백승옥, 2020, 『반파국 위치 재론』, 『전북사학』 58, 102쪽.

54) 『三國史記』 권37, 지리4, 고구려, 한산주. “達乙省縣 漢氏美女 於高山頭點烽火 迎安臧王之處 故後名高烽”

55) 『新唐書』 권106, 郭正一傳. “且明烽候”

보』에 보도(2021.6.7)된 ‘전북가야 쟁점…봉수, 제철, 문헌, 용어’라는 題下의 기사를 읽고 다음과 같은 반박문을 작성했다.

① “반파는 백제가 대가야와 적대적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격상을 낮추기 위해 부른 용어라는 점” :

반파국에 대한 표기는 『일본서기』의 ‘伴跛’와 『양직공도』의 ‘叛波’, 바로 이 2종류이다. 그런데 ‘伴跛’가 대가야 즉 加羅에 대한 貶稱이라면, 伴跛=加羅 간의 연관성이 보여야 한다. 가령 고구려하면 ‘狛’이나 ‘句驪’ 등이 卑稱이듯이, 누구나 수궁할 수 있는 양자 간의 연관성을 제시해야 한다. 먼저 ‘伴跛’의 ‘伴’은 ‘1. 짝 2. 따르다 3. 한가하거나 느긋한 모양 4. 뚱뚱한 사람 5. 同伴者 등 죄다 좋은 의미를 지녔다. 그리고 ‘跛’는 ‘1. 절뚝발이 2. 기대서다 3. 기우듬히섬 4. 절뚝거리다 5. 절며 걸음’의 뜻이다. 이 글자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긴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겠지만, ‘짝’의 뜻을 지닌 ‘伴’자와 어우러질 때 ‘짝이요 동반자가 기대선’의 긍정적인 뜻이 된다. 반면 ‘叛波’는 아예 좋은 의미 자체가 없다. 반파의 ‘叛’은 ‘배반할’ 등의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波’는 ‘평온하지 못함, 분규·갈등’의 뜻을 지녔다. 예를 들어 『莊子』에 적힌 유명한 ‘言者風波也’ 문구를 비롯해 波動·波紋·波長 등 모두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대가야에 대한 ‘伴跛’ 비칭설은 타당하지 않다. 반면 ‘伴跛’의 비칭을 ‘叛波’로 지목하는 게 사리에 맞다.

② “반파가 성을 지은 ‘자탄’은 경남 거창, ‘대사’는 경남 진주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

김태식의 견해를 검증없이 믿고 가는 것이다. 그러면 이 견해를 검증해 보도록 한다. 다음 김태식의 견해를 적출하여 검증해 보기로 한다.

- k. 子呑은 『欽明紀』 2년(541) 4월 조 등에 보이는 子他와 같다고 보인다. 자탄과 자타의 訓은 일반적인 『일본서기』 流布本에서는 ‘고톤 코톤’, ‘고타 코타’로 하고 『釋日本紀』에서는 ‘시톤 시톤’, ‘시타 시타’라고 하였다. 그 발음에 따라 居陀 즉 지금의 경남 진주 또는 거창이라 한 설과(각주 119: 末松保和, 1949, 앞의 책, 127쪽), 漆吐 즉 지금의 경남 칠원이라 한 설로(각주 120: 전영래, 『南原 草村里古墳群發掘調査報告書』, 76쪽) 견해가 나뉜다. … 그러므로 자탄·자타는 ‘고톤·고타’로서 발음되어 우리 지명에서의 ‘거타’와 같다고 해야 한다. … 따라서 자탄

=자타는 진주로 보는 것이 옳다.⁵⁶⁾

김태식은 “일반적인 『일본서기』 流布本에서는 子呑을 ‘고톤 코톤’, 子他를 ‘고타 코타’로 하고 『釋日本紀』에서는 ‘시톤 シトン’, ‘시타 シタ’라고 하였다”고 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일본서기』 流布本’인 岩波本에서는 子呑을 ‘시돈 시톤’, 子他를 ‘시다 시타’로 적었다. 그러므로 김태식은 자신이 인용한 『일본서기』 流布本の 出典을 분명히 밝혀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김태식은 『釋日本紀』에서 子呑과 子他를 각각 ‘시톤 シトン’, ‘시타 シタ’라고 했지만, 『釋日本紀』에서는 濁音を 넣어 子呑은 ‘지돈 シトン’ 그리고 子他는 ‘지다 シタ’로 각각 읽었다.⁵⁷⁾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태식은 『일본서기』 流布本에서 子呑을 ‘고톤’, 子他를 ‘고타’로 발음한다고 하여 동일 지역으로 간주했고, 급기야 居陀로 불렀다는 晋州로 비정했다. 그렇지만 핵심 근거인 ‘고톤’이나 ‘고타’ 발음은 『일본서기』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게다가 末松保和가 『任那興亡史』에서 자탄을 ‘지금의 경남 진주 또는 거창’이라고 했다지만, 정작 同書의 동일한 쪽에서는 “晋州 以西, 섬진강 방면의 山地로 여겨진다”⁵⁸⁾고 했다. 이렇게 되면 김태식이 반파=대가야라는 전제에서 설정한 진주 혹은 거창을 위시한 방어 체계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참고로 ‘지금의 경남 진주 또는 거창’이라고 한 출전은, 岩波本 『일본서기』 註釋에서 “子他(子呑) : 임나의 한 國으로 경상남도 거창 또는 진주 땅이라고 한다”⁵⁹⁾고 한 구절이다. 여기서 두 곳을 동일한 곳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子呑과 子他는 비록 음가는 비슷하지만, 글자도 다를 뿐 아니라 두 지명이 동일하다는 분명한 근거는 없다.⁶⁰⁾

반파국이 왜군의 침공 예상로에 축성한 것이므로 김태식이 지목한 내륙의 거창이나 진주는 타당하지 않다.

③ “고령토기의 확산지점이 넓다는 점” :

대가야 토기의 확산을 영역이나 영향력으로 간주하는 것은 오산이다. 『일본서기』와 『양직공도』에 모두 등장하는 多羅는 가라의 바로 남쪽인 합천 쌍

56) 金泰植, 2014, 『사국시대의 가야사 연구』, 서경문화사, 131쪽.

57) 『釋日本紀』 권17, 秘訓2, 繼體.

『釋日本紀』 권18, 秘訓3, 欽明.

58) 末松保和, 1956,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 127쪽.

59) 井上光貞 外 校注, 1994, 『日本書紀(三)』, 岩波書店, 247쪽. 187쪽.

60) 이도학, 2020, 「가야사 연구의 쟁점과 반파국」, 『전북학연구』 2,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64-65쪽.

책면을 거점으로 하였다. 이 곳의 옥전 고분군에서 520년대를 상한으로 하여 6세기 중엽까지 조성된 고분에서 신라계 묘제인 횡구식 석실묘가 돌연히 등장한다. 부장품 가운데 피장자의 정체성 지표가 되는 出字形 寶冠과 把手附杯는 신라계였다.⁶¹⁾ 특히 M6호분에 부장된 出字形 寶冠은 정치적 상징성이 지대한 것이므로, 문화 교류로만 설명할 수 없다. 오히려 이 무렵 다라국 사회에 지대한 변화가 따랐음을 뜻하는 징표일 수 있다. 즉 다라가 근접한 가라를 제끼고 오히려 멀리 떨어진 신라와 정치적으로 밀착했음을 반증한다. 실제 다라는 가라 사신과 더불어 541년(欽明 2)에 임나제국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에 독자 사신을 파견했다. 다라는 544년(欽明 5)에도 가라와 나란히 사신을 회의에 보냈다. 그리고 다라는 562년에 멸망할 당시의 가라나 안라와 더불어 최종적으로 남은 임나 10국에 속했다. 이렇듯 다라국은 가라와 지리적으로 접했지만 멸망할 때까지 독자성을 유지하였다. 다라는 가라에 종속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백제(旁小國)와 신라(出字形 寶冠)의 입김이 함께 미치는 독자 정치체였다. 그러므로 대가야 분묘 형식과 토기의 존재를 정치적 영향력과 일치시켜 해석해서는 안된다.⁶²⁾

④ “『일본서기』가 『삼국지』의 문헌 내용을 윤색했다는 점 등을 들어, 반파는 대가야일 가능성이 높다.” :

설령 『일본서기』가 『삼국지』의 관련 구절을 윤색했다고 치더라도 반파국이 대가야가 되지 않는 않는다. 윤색은 어디까지나 과장과 미화를 가리키는 의미의 조작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 그러므로 반파국이 왜에 대비해 봉후 즉 봉화대와 저각 즉 군창을 조성했다는 사실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 실제 전라북도 동부 지역에서 봉화대의 존재가 확인되었으므로, 삼국시대 봉화대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고령이 돌연히 반파국이 될 수는 없다. 사리에 맞지 않은 억설인 것이다.

⑤ “일본서기에 나온 데로, 반파가 514년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단기간에 봉화를 세웠다면 구조적인 공통점이 있어야 한다. 게다가 남해안 쪽에도 분포해야 한다.” :

산성 축조처럼 지역 분담별로 축조했고, 처음 시도하는 봉화대 공사인 관계

61) 조영제, 2007, 『옥전고분군과 다라국』, 혜안, 120~121쪽. 228쪽. 237~238쪽. 244쪽.

62) 이도학, 2020, 『전북가야의 태동과 반파국』, 『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전북가야』, 호남고고학회, 65쪽.

로 지역에 따라, 또 작업조에 따라 정형성 없이 조성되었던 것이다. 경주 남산 신성은 신성비에 적혀 있듯이 신라의 광활한 지역에서 동원되어 축조하였다. 이와는 달리 전북 동부 지역 봉화대는 현지 지역민들이 분담하여 조성한 것이다. 게다가 익숙하지 않은 처음 축조한 통신 시설인데다가 급히 조성한 관계로 정형성을 띄기 어려웠던 게 당연하다. 그리고 광장근은 학술대회 현장에서 봉화대가 “섬진강 유역에도 배치된 흔적이 확인된다”고 하였다. 남해안쪽 봉화대에 대한 차후의 조사를 기대한다.

⑥ “장수가야, 김해가야, 함안가야라는 용어는 참 어색하다. 예컨대 ‘전북가야’라는 표현은 전북 전체의 역사적 정체성을 오도할 위험성이 있다.” :

행정지명+가야를 붙인 국가 이름은 『삼국유사』의 6가야에서부터 비롯하였다. 일례로 星山伽耶의 ‘星山’은 신라 때 星山郡이었다.⁶³⁾ 지금의 행정 구역으로는 경북 高靈郡 星山面을 가리킨다. 성산가야의 예에서 보듯이 ‘행정지명+가야’는 역사적 전례가 있다. 그러나 ‘장수가야’나 ‘전북가야’는 즉흥적으로 창안한 이름이 아니었다. 그리고 ‘전북가야’는 ‘전북 지역 가야’나 ‘전북 지역 소재 가야’의 줄임말이다. 너무 棒大하지 않기를 바란다.

3. 맺음말

‘전북가야’의 존재는 가야고분의 확인을 통해 성립된 것이다. 고고학적 발굴과 조사 성과는 전라북도 동부 지역에 가야문화를 공유하는 정치체의 존재를 발견하게 하였다. 지금까지 연구에서 ‘전북가야’의 존재는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요 또 그 실체까지 확인되었다. 문제는 ‘전북가야’의 성격과 존재 양식이었다. 이와 관련해 중요한 논점이 반파국과 기문국의 소재지가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반파국의 소재지를 대가야와 연관지어 해석하는 견해가 주종을 이루었다. 그렇게 된다면 대가야의 영역과 영향력이 전라북도 동부 지역까지 미친 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일차적으로 장수와 남원 지역 고총고분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차적으로는 기문국을 남원으로 비정했을 때 반파국과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즉 고총고분이 엄

63) 『三國史記』 권34, 地理1, 新羅. “星山郡 本一利郡 一云里山郡 景德王改名 今加利縣 領縣四”

존한 장수 지역 정치체에 대한 비정을 건너뛰는 일이 빚어진다. 기문이라는 이름으로 남원과 장수를 포괄하기에는 양자가 세력이 비등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원을 상기문으로 비정한다면 장수는 중기문이나 하기문이 될 수는 없다. 혹은 상기문을 장수로 비정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남원이 중기문이나 하기문이 되는 것이다. 역시 여러 모로 타당하지 않은 비정이 된다.

최근 수년 간 여러 논문을 통해서 밝혔듯이 반파국은 장수로 비정하는 일이 가장 합리적이다. 문헌과 고고학적 물증이 부합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 논리를 부수기 위해 논자들은, 『일본서기』의 관련 기사가 『삼국지』 장기전의 문구 가운데 7자가 동일하다는 것을 제기했다. 이른바 윤색설이 태동한 것이다. 그런데 양자는 내용이 다르고 대상과 시점도 전혀 관련이 없다. 『일본서기』 관련 기사 가운데 7자가 동일하다고 하여 그 내용 자체까지 지어낸 허구는 전혀 아니다. 실제 윤색설의 윤색은 과장이나 미화를 가리키는 말이다. 날조나 조작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므로 ‘烽候邸閣’의 실체는 인정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인들이 지은 『일본서기』에서 반파국을 미화하거나 과장해야 할 이유가 없다. 왜군은 반파국과의 전쟁에서 참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색설은 사리에 맞지 않은 주장일 수밖에 없다. 다만 『일본서기』 전편에서 나타나는 윤색의 하나일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하여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烽候 즉 봉화대의 존재가 현재까지 무려 120곳이나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봉화망과 방어 방향 등에 대한 논의는 지역적인 사안에 불과하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史書의 기록과 물증의 정확한 부합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봉화망의 운용 주체는 『일본서기』에 적힌 반파국이었다. 반파국을 장수 지역으로 비정할 수밖에 없는 근거는 넘쳤다.

거대한 봉화망의 확인은 사서에서 누락된 정치체의 발견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른 것이다. 우리나라 사서에 보이지 않으므로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다. 이해 당사자들의 관심 속에서 登載되었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백제와 왜 그리고 신라까지 가세한 상황에서 반파국은 3년 간에 걸친 전쟁을 수행하였다. 총 4개 국의 이해가 걸린 사안은 국가 운영과 깊이 관련한 비상한 요소임을 상정할 수 있다. 그 존재는 지표 조사만으로도 막대하게 확인된 제철 단지 확보라고 할 때 의문이 풀리게 된다. 실제 운봉고원과 진안고원의 장계분지 일원에는 놀랄 정도의 제철 산지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제철 산지의 확보에 국가 초유의, 사활을 건 격전이 3년 전쟁의 실체로 파악할 때 납득이 되는 것이다. 차후 제철 유적을 체계적으로 발굴하면 이 같은 상정을 뒷받침해 줄게 분명하다.

지금까지 ‘전북가야’ 반대론자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제기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봉화망의 방향이나 가야 때 제철 유적이냐는 의문을 제기해 왔었다. 그러나 이는 지엽적인 논의일 뿐이다. 본질적인 사실은 3년 전쟁의 원인이 드러났고, 문헌 기록이 입증해 주었다. 물론 반대론은 차후 세밀하게 살펴야 할 과제를 각자에게 남겨 주었다. 현재는 역사에 배제된 새로운 정치체의 발견과 또 이를 통한 해석과 복원 작업에 관한 소임을 안게 되었다. 이 점에서 ‘전북가야’가 지닌 의미는 중차대한 것이다.

논문접수일: 2022. 02. 26. / 심사개시일: 2022. 04. 01. / 게재확정일: 2022. 04. 15.

참고문헌

원전자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新增東國輿地勝覽』 『星湖全集』 『宋書』 『南齊書』 『梁書』 『南史』 『翰苑』 『通典』 『新唐書』 『日本書紀』 『續日本後紀』 『新撰姓氏錄』 『釋日本紀』

단행본

- 곽장근, 2021, 『전북고대문화 역동성』, 서경문화사.
- 今西龍, 1937, 『朝鮮古史の研究』, 近澤書店.
- 金泰植, 1993, 『加耶聯盟史』, 一潮閣.
- 金泰植, 2014, 『사국시대의 가야사 연구』, 서경문화사.
-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2018, 『中國正史東夷傳校勘』.
- 末松保和, 1956,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
- 李道學, 2019, 『가야는 철의 왕국인가』, 학연문화사.
- 이도학, 2021, 『한국고대사 최대 쟁점, 백제 요서경략』, 서경문화사.
- 李丙燾, 1959, 『韓國史 古代篇』, 乙酉文化社.
- 李丙燾, 1976, 『韓國古代史研究』, 박영사.
- 全榮來, 1983, 『南原月山里古墳群發掘調査報告』,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 정구복 外, 1997, 『譯註三國史記』 4, 주석편(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井上光貞 外 校注, 1994, 『日本書紀(三)』, 岩波書店.
- 丁若鏞, 『我邦疆域考』.
- 朝鮮總督府, 1932, 『朝鮮史(日本史料)』, 朝鮮印刷株式會社.
- 조영제, 2007, 『옥전고분군과 다라국』, 혜안.
- 佐伯有清, 1982, 『新撰姓氏錄の研究 考證篇 第二』, 吉川弘文館.
- 池内宏, 1970, 『日本上代史の一研究』, 中央公論美術出版.
- 千寛宇, 1991, 『加耶史研究』, 一潮閣.
- 坂本太郎, 小島憲之, 1980, 『日本書紀』, 岩波書店.
- 湯淺幸孫 校釋, 1983, 『翰苑校釋』, 國書刊行會.

논문 등

- 郭長根, 2011, 「전북지역 백제와 가야의 교통로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63권, 81-114쪽.
- 郭長根, 2013, 「임나사현과 기문의 위치」, 『百濟學報』 9권, 168-191쪽.
- 郭長根, 2017, 「장수군 제철유적의 분포양상과 그 의미」, 『湖南考古學報』 57권, 4-25쪽.
- 곽장근, 2017, 「호남 동부지역 가야문화유산 현황」, 『경남발전』 138권, 34-57쪽.
- 곽장근, 2020.10.16, 「삼국시대 봉화대 분포망과 반파국 비정」, 『전북가야 심포지움』, 전북연구원.
- 김세희, 2021.06.07, 「전북가야 쟁점…봉수, 제철, 문헌, 용어」, 『전북일보』.
- 박찬화, 2021.11.05, 「기문가야,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한 개념인지에 대한 소고(小考)」, 『남원 가야유적의 역사적 성격』, 전북사학회.
- 백승욱, 2020, 「반파국 위치 재론」, 『전북사학』 58권, 87-116쪽.
- 李道學, 2011, 「谷那鐵山과 百濟」, 『東아시아 古代學』 25권, 65-102쪽.
- 李道學, 2018, 「三國時代의 儒學 政治理念에 의한 統治 分析」, 『韓國史研究』 181권, 1-38쪽.
- 李道學, 2019, 「伴跋國 位置에 대한 論議」, 『역사와 담론』 90권, 47-82쪽.
- 이도학, 2019.11.15, 「‘반파국 위치 재론’ 토론문」, 『전북지역 고대 정치체와 가야 학술대회』, 전라북도.
- 이도학, 2020.06.26, 「가야와 백제 그리고 후백제 역사 속의 長水郡」, 『장수 침령 산성 성격과 가치, 후백제학회 학술세미나』.
- 李道學, 2020.10.16, 「가야사 연구의 현황과 반파국」, 『전북가야 심포지움』, 전북연구원.
- 李道學, 2020, 「가야사 연구의 쟁점과 반파국」, 『全北學研究』 2권, 35-75쪽.
- 이도학, 2021, 「문헌으로 검토한 반파국 비정과 그 역사성」, 『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반파가야』, 호남고고학회.
- 이도학, 2021.05.06, 「장수가야가 반파국인 이유」, 『전북일보』.
- 이도학, 2021.11.05, 「임나와 기문국에 대한 몇 가지 의문-최근 제기된 견해에 대한 검토」, 『남원 가야유적의 역사적 성격』, 전북사학회.
- 조명일, 2012, 「금강 상류지역 산성 및 봉수의 분포 양상과 성격」, 『호남고고학보』 41권, 67-90쪽.
- 조명일, 2018, 「全北 東部地域 烽燧에 관한 一考察」, 『湖南考古學報』 59권,

90-107쪽.

조명일, 2020, 「전북 동부지역 봉화의 축조 기법과 구조」, 『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전 북가야』, 호남고고학회.

전상학, 2020.10.16, 「고고자료와 문헌으로 본 상기문국」, 『전북가야심포지움』, 전북연구원.

全榮來, 1985, 「百濟南方境域의 變遷」, 『千寬宇先生還曆紀念韓國史學論叢』, 정음사.

<Abstract>

Verification of the Historical Substance of “Kaya Located in Jeonbuk”

Lee, Dohack*

Although the view of interpreting the location of Banpaguk in connection with Daegaya is mainstream, it is difficult to explain the reason for the existence of large tombs in the Jangsu area and Namwon area. And as stated in several papers in recent years, it is most reasonable to dismiss Banpaguk country as a longevity area. Isn't it because the literature and archaeological evidence match?

In order to break this logic, a related article in a history book called Nihon-shoki raised that seven letters were the same among the phrases in the history of person Jang-ki of history book SamGuji. The claim that the so-called phrase was decorated was born. However, the two have different contents and have nothing to do with the object and viewpoint. Just because seven letters of the related article in the historical book called “Nihon-shoki” are the same does not mean that the contents themselves were made up at all. In fact, the meaning of decorating the contents raised earlier refers to exaggeration or beautification. Since it does not mean fabrication or manipulation, the substance of “烽候邸閣” is recognized.

There is no reason to glorify or exaggerate the Banpaguk in a history book titled Nihon-shoki. This is because the Japanese army suffered a crushing defeat in the war against Banpaguk country. Therefore, the claim that the content was glorified is bound to be an argument that does not make sense. However, it may be one of the beautifications of the contents in the prequel of Nihon-shoki. That doesn't change the content. The important fact here is that as many as 120 beacon stations have been discovered so far. Discussions on the beacon network and defense direction are only peripheral issues. The important fact was the exact agreement between the records of history books and physical evidence. The operating entity of this beacon network was the country's Banpaguk written in the Nihon-shoki.

Key Words : Banpaguk, Daegaya, Phrase was decorated, Nihon-shoki, SamGuji, Jangsu, Beacon network

*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Dept. of Archaeology

